



조 트린지 감독. (AI페퍼스 제공)

# 아헨 김 떠나보낸 페퍼스, 또 외국인 감독 선임

### 새 사령탑에 미국출신 조 트린지 미국·캐나다 국가대표팀 이끌어 이달 초 입국, 코보컵 대비 훈련 구단주 변화 시도 의지 반영된 듯 페퍼스 단장 "팀 성장시킬 적임자"

아헨 김 감독을 선임 4개월 만에 떠나 보낸 광주 AI페퍼스가 또다시 외국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페퍼스배구단(구단주 장매튜)은 "신임 감독으로 조 트린지(Joe Trinsey·38)를 선임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조 트린지 감독은 이달 초 입국해 훈련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캐나다 등 국가대표팀을 이끈 베테랑이다. 페퍼스 구단은 "조 트린지 감독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지휘함으로써 아헨 김 전 감독의 훈련 체계에 익숙해진 선수들이 빠르게 새체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조 트린지 감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여자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했다. 미국 대표팀의 2014년 세계배구선수권대회 첫 우승, 2015년 월드 그랑프리세계여자배구대회 금메달·랭킹 1위, 2016년 올림픽 동메달 획득을 함께 했다. 2021년 북중미 카리브배구연맹 여자선수권대회 미국대표팀 감독직을 맡기도 했다. 2019년 캐나다 여자국가대표팀 코치직을 맡아 팀 사상 최초로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참가자격을 얻는데 일조했다.

2022년 캐나다 남자국가대표팀 코치도 지냈다. 조 트린지 감독은 미국 스티븐스 공대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수생활을 했다. 미국 국가대표팀에서 분석관과 보조 지도자로 경력을 시작했다. 김동연 AI페퍼스 단장은 "조 트린지 감독은 여러 배구팀의 코치·감독을 맡아 명성을 쌓았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코칭시스템으로 소속 팀의 성과를 개선한 지도자"라며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AI페퍼스에 힘과 활력을 더하고 팀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트린지 감독은 "AI페퍼스 감독을 맡게돼 큰 영광이고, 구단과 선수단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쌓았던 경험을 잘 활용해서 AI페퍼스 팬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트린지 감독은 7월 초 입국해 29일 개막하는

2023 코보컵에 대비해 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헨 김 감독이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선수단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선수장·단점 파악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감독 선임에는 장 매튜 구단주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감독보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 팀에 변화를 주고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 배구 해설위원은 "아헨 김이 한 게임도 치르지 않고 그만 두는 바람에 구단주로서 변화를 시도조차 못한 상황이었다. 끝을 보기 위해 또다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다"며 "신임 감독은 국제 경험이 풍부해 전임 아헨 김 보다 시야는 넓을 것 같다. 국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한국과 폴란드의 경기.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한 한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방서도 연패 끊지 못한 한국 여자배구

### 네이션스리그 폴란드에 0-3 패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3주 차 마지막 경기에서도 연패를 끊지 못했다.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랭킹 34위)은 2일 경기도 수원시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폴란드(8위)와 경기에서 세

트 점수 0-3(23-25, 18-25, 16-25)으로 졌다. 앞서 1주 차(튀르키예)와 2주 차(브라질) 경기에서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하고 8연패를 당한 한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4판을 내리 쳐 올해 VNL을 12연패로 마쳤다. 지난해에도 VNL 12전 전패를 당한 한국 여자배구는 2년 연속 승리는커녕 승점조차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가 VNL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건 약 2년 전인 2021년 6월 15일 캐나다전(세트 점수 3-2)이었다. 이후 2021년 VNL을 3연패로 마감한 한국 여자배구는 지난해 VNL 12전 전패에 이어 올해도 12연패를 당해 VNL에서만 포함 27연패를 당해 세계 무대와 현격한 전력 차를 드러냈다. 다만 FIVB가 지정한 '핵심 팀' 자격을 2024년까지 유지해 내년에도 하위 대회 격인 발리볼챌린저컵 강등 없이 그대로 VNL에 출전할 수는 있다. /연합뉴스

## 여자배구 '몸값 1위'에 김연경·박정아

### 연봉·옵션 총 7억7500만원

### 남자부는 10억8000만원 한선수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과 '이적생' 박정아(페퍼스), '베테랑 세터' 한선수(대한항공)가 2023-2024시즌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와 남자부에서 나란히 '몸값 1위'에 등극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30일 "한선수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연봉 7억 5000만원, 옵션 3억 3000만원 등 총액 10억 8000만원에 계약해 남자부 최고 보수 선수 자리를 지켰다"고 전했다. 이어 "여자부에선 김연경과 박정아가 각각 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 등 총 7억7500만원으로 보수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김연경은 지난 시즌 연봉 총액(7억원)에서 5000만원의 보수를 더 받는다. 박정아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뒤 페퍼스와 계약하면서 김연경과 같은 계약 조건에 사인했다. 남자부 보수 2위는 대한항공 공격수 정지석(총 9억 2000만원), 3위는 OK금융그룹의 세터 이민규(총 9억 8000만원)다. 현대캐피탈 공격수 허수봉(총 8억원), 한국전력 마블 블로커 신영석(총 7억 7000만원)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여자부 보수 3위는 KGC인삼공사 공격수 이소영(총 6억 5000만원), 4위는 현대건설 마블 블로커 양호진(총 6억원)이다. 새 시즌 남자부는 7개 구단 111명의 선수가 된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한국전력, 우리카드는 17명, OK금융그룹은 15명,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14명을 등록했다. 남자부 평균 보수는 지난 시즌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억 2900만원이다. 여자부는 7개 구단 106명이 등록했다. 흥국생명 이 가장 많은 17명의 선수와 계약했다. 현대건설은 16명, 한국도로공사와 KGC인삼공사, 페퍼저축은행은 15명, GS칼텍스와 IBK기업은행은 14명이 된다. 여자부 평균 보수는 지난 시즌 대비 약 13%가 증가한 1억 5200만원이다. /연합뉴스

## 9월 개막 2023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 총단장에 박용수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박용수(오른쪽) 전남탁구협회장 겸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이 '2023 평창 아시아탁구 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 국가대표 총단장으로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최근 열린 '2023 평창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에서 총 단장으로 임명됐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과 삼재군 평창군수가 대회 공동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김홍균(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등 부위원장 6명, 운영위원 9명으로 조직위가 꾸려졌다. 박용수 전남탁구협회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개최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대해 충실하고, 선수들의 최상의 경기력과 대회준비



2023 평창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총단장에 임명된 박용수(오른쪽)전남탁구협회장과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전남도체육회 제공>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 제26회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돔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데뷔전 우승' 세이키너, 이충복과 맞붙는다

### PBA 프로당구 2차대회 3일 개막

PBA 프로당구 개막전인 경주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에서 데뷔 투어 우승을 이룬 '미스터 매직' 세미 세이키너(튀르키예·휴온스)가 2차 투어 첫 판부터 강호와 대결한다. PBA가 2일 공개한 2차 투어 '실크로드&안산 PBA-LPBA 챔피언십' 대진표에 따르면 세이키너는 PBA 128강전에서 이충복(블루원리조트)과 맞붙는다. 아마추어 3구와 예술구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세이키너는 이번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PBA 개막전에서 거침없이 7연승 행진을 벌이며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세이키너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 PBA에 합류한 이충복은 지난해 베셀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다. 세이키너와 이충복의 맞대결은 4일 밤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개막전에서 첫판 탈락의 충격을 맞은 '신입 강호'는 프로 첫 승리 사냥에 나선다. '스페인 당구 전설' 다니엘 산체스(에스아이)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해데), 최성원(휴온스)은 비를 위마즈(튀르키예·웰컴저축은행), 무랏 나시 초콜루(튀르키예·하나카드)는 김원근과 각각 128강전을 치른다. 기존 PBA 무대를 주름잡았던 강호들의 대진도 확정됐다. 개막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웰컴저축은행)은 와일드카드로 대회에 합류한 이태호를 상대한다.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는 박기명, 조재호(NH농협카드)는 이장렬, 강동궁(SK렌터카)은 이재홍과 첫 경기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3일 개막하며 9일 오후 9시 30분에 여자부 LPBA 결승전이, 10일 오후 10시에는 남자부 PBA 결승전이 각각 열린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즐거움 문화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엘리멘탈
- 2관 엘리멘탈
- 3관 범죄도시3, 애스터로이드 시티
- 4관 귀공자
- 5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파이어하트
- 6관 범죄도시3, 애스터로이드 시티
- 9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 7관 싸네커를 귀공자, 여름날 우리
- 8관 싸네커를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라방, 플래시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악원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여정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